

# 濟州島 方言의 後置詞에 關한 研究

이를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姜 榮 峯

指導教授 金 洪 植

1981學年度

---

姜榮峯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教育大學院

主 審 \_\_\_\_\_ ①

副 審 \_\_\_\_\_ ①

副 審 \_\_\_\_\_ ①

1981學年度

# 目 次

I. 緒 言	2
II. 本 論	7
가. 用言的인 後置詞	7
1. /아올라/	7
2. /마라, /	10
3. /아 자/	13
4. /신 디/	15
5. /만 이/	19
나. 体言的인 後置詞	21
1. /디/	21
2. /안 터/	26
3. /아 피/	27
다. 格으로의 素性과 /이손터/	28
III. 結 論	32
○ 參考文獻	33
○ ABSTRACT	36

## I. 緒 言

1 : 1 제주도 方言은 改新波의 영향을 늦게 받아 그 持有的 모습을 維持하고 있다. 따라서 /·(v)/은 17世紀 前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sup>(1)</sup>, 壯年과 年少層 사이에도 母音發話에 차이가 있어, 壯年은 9 母音体系(三序三系四角組織), 年少層은 7 母音体系(三序三系三角組織)를 가지고 있으며,<sup>(2)</sup> 定動詞語尾로 나타나지는 動作相의 發達<sup>(3)</sup>, 主体尊待法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점<sup>(4)</sup>等 몇 가지를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諸氏들에 依하여 제주도 方言(以下 方言이라고 함)에 대한 많은 研究가 있었다<sup>(5)</sup>고 하는 사실도 그만큼 方言이 國語方言學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解決해야할 문제가 많이 散在해 있다고 본다. 그 中의 하나가 다음에 提示할 例文에서 발견, 考察하고자 한다.

---

注 1) ,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塔出版社(1978). p.5.

2) , 玄平孝, 「濟州島方言의 母音体系」, <國文學報> 3, (1970),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pp, 9-19.

3) , \_\_\_\_\_,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 垂細垂文化社(1976). pp, 11-55.

4) , \_\_\_\_\_, 「濟州島方言의 尊待法」, <국어국문학> 74. 國語國文學會 (1977), pp, 1-36.

5) , \_\_\_\_\_, 「濟州島方言研究에 대한 檢討」 <方言> 1,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79), pp, 32-49 및 <方言> 2, (1979) pp. 35-56 을 참고할 것.

성신디 마르라. (형님에게 이야기해라)  
 나아피 주라. (나에게 다오)  
 가의 마라 마르랜 하라. (그이에게 이야기하라고 해라)  
 놨안티 주랴호연 (남에게 주겠느냐 하여서)

위 例文에 사용된 /신디, 아피, 마라, 안티, 가 陸地語 / 에게. 한  
 태 / 에 해당된다고 해서 一括하여 格語尾로 처리하고 있음을 본다.<sup>(6)</sup>

言語研究에 있어 <알지 못하는 言語>에서 출발, 研究하는 것이 때  
 로는 큰 成果를 올릴 수 있으므로 眞正으로 意味있는 作業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상은 특수한 言語인 國語  
 를 使用하고 있는 言衆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言語事實이 많다.

문제의 출발은 方言에 사용된 格語尾들이 新羅時代까지 올라갈수록  
 그 原始形을 維持하고 있어 格體系를 再構할 수 있으며<sup>(7)</sup>, 原始時代  
 부터 与格이 存在하지 않았다는 점<sup>(8)</sup>에 있다. 그리고 위에서 提示한  
 語辭들은 다같이 実辭에 根源을 두고 있는 虛辭인 만큼 다른 각도  
 에서 解決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注 6) , 姜根保, 「濟州島方言의 接尾辭研究」 <논문집> 9, 濟州大學  
 pp. 66-71 .

, \_\_\_\_\_, 「濟州島方言의 曲用에 대하여」 <논문집> 10 .  
 濟州大學 (1978), pp. 66-71

, 康貞姬, 「濟州島方言의 処格 '디' 에 관한 一考察」  
 <方言> 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pp. 75-92 .

7) , 李崇寧, (1978), Ibid, pp. 42-44 .

8) , \_\_\_\_\_,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1970), p. 147 .

1 : 2. 그러면, 과연 解決方法은 무엇일까?

周知하는 바와같이 Ramstedt 가 《A Korean Grammar》에서 國語의 品詞 속에 post position을 세운 以後에 李 承旭教授가 「國語의 post position에 대하여」란 論文에서 우리 國語에 post position을 品詞로 설정할 것을 披瀝한 바 있다. 李 承旭教授에 依하면 post position은<sup>(9)</sup> (以後 post position을 後置詞라 對訳하기로 한다.) 內的으로는 語節的인 구조를 가지며 外的으로는 統辭論的 排列의 위치를 제한하는 일련의 語類로서의 기능을 並行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을 抽象的인 時·空概念의 具象化라는 技巧도 가지고 있다<sup>(10)</sup>는 것이다. 그리고 이 後置詞는 先行하는 어휘와의 關係로 볼 때 體言의 의미와 기능을 가진 말로 보고 있다. 따라서 先行語의 格支配도 흔히 體言 사이의 結合에서 主從 形式이 있듯이 屬格과의 關係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1)</sup>는 것이다.

이 理論에 의거 李 崇寧博士는 <中世國語文法>에 처음으로 後置詞란 品詞를 설정하고 있다.

---

注 9) 대부분의 學者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대표적인 例로는 池浚模氏; 「國語名詞의 屈折說을 否定한다」, (<語文學> 17. 韓國國語文學會 p. 23)란 論文이다.

10) 李承旭, 「國語의 post position에 대하여」, <國語文法體系의 史的研究> 一潮閣 (1973), pp. 106-107.

11) , \_\_\_\_\_, (1973), Ibid, p. 108.

이 後置詞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열거 하면,

첫째 ; 動詞, 名詞와 같은 實辭에서 발달하여 그 구실이 格과 비슷하게 된 것이다.

둘째 ; 앞이나 뒤에서 語幹과의 사이에 格을 가질 수 있다.

셋째 ; 앞 말의 形態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語幹母音과의 관계인 母音調和規則 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넷째 ; 이 후치사가 글에서 除去되면 文章이 成立되지 않든지 글의 뜻이 바뀐다.

다섯째 ; 後置詞는 格과 같은 구실을 함이 일반이다.<sup>(12)</sup>

等이다.

이런 諸特徵을 가지고 있는 후치사는 그 종류를 基本的인 것, 體言的인 것, 用言的인 것 셋으<sup>(13)</sup>로 나눌 수 있다.

1 : 3. 方言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語尾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ㄱ지 (까지), 부터 (부터), 부뎌 (부터), ㅁ장 (까지), ㄴ찌 (같이), ㄴ뎌 (같은), ㅅ (째), 만정 (만큼), ㅈ아<sup>(14)</sup> (갖추어), 만씩<sup>(15)</sup> (만큼),

---

注 12) . 李崇寧,( 1970) , Ibid, p. 146

13) . 기본적인 것은 單純型인 것을, 體言的인 것은 曲用하는 것을, 用言的인 것은 用言이 語源인 것을 말한다.

李承旭,(1973) , Ibid, pp. 113-114.

14) . 例文. 귀 아 살젠 호단보난 (귀 갖추어 살려하다보너)

15) . 例文. 하늘만씩 둘러키영 (하늘만큼씩 날뛰어)

신디 (에게), 안티 (안테), 아피 (에게), ㄴ라 (에게), 아울라 (마저), 아자 (계속해서), 만이 (만큼), 드레 (쪽으로), 디 (에) / 等이다. 여기서, / 지, 부떠, 부땀, ㅁ장, ㄴ찌, ㄴ땀, 채, 만정, ㄴ아, 만씩 / 등은 陸地語와 같이, 形成이라든가 用法이 같기 때문에 論外로 하고 이 方言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몇 語辭만을 선택. 실제 發話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 用法까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記述의 편의상 고찰대상, 즉 / 신디, 안티, 아피, ㄴ라, 아울라, 아자, 만이, 디 / 를 두 갈래로 나누어,

- (가). 用言的인 후치사- / 아울라, ㄴ라, 아자, 신디, 만이 /
- (나). 体言的인 후치사<sup>(16)</sup> / 디, 안티, 아피, /

로 구분·고찰한 뒤에, 몇몇 後置詞를 格語尾로 다루는데 대한 오해까지 풀어가고자 한다. 제주도 方言의 가치라든가, 中世國語에 나타나는 / (이) 손더 / 의 方言形까지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은 부수적으로 얻은 산물일 것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예문들은, 실제 原語民 (native speaker) 의 發話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玄容駿教授의 <濟州島巫俗資料事典>, 金榮敦教授의 <濟州島民謠研究·上>, 秦聖麒氏의 <南國의 民謠>에서 인용했으며, 힘 입은 바 큼을 밝히어 둔다.

---

注 16) , 여기서 '用言的인 것', '体言的인 것', 하는 用語는 各各 그 語源을 用言에 두고 있는 것과 體言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함.

## II. 本 論

### 가) 用言的인 후치사

#### 1. /아울라/

1 : 1. 이 /아울라/가 어디에 語源을 두고 있는지 실제 발화에서 잘 들을 수 없어 현단계에서는 속단할 수 없지만, '아우르다(아울다)'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陸地語에서도 '아우르다'와 '어우르다'가 다 쓰이는데, '아우르다'가 '어우르다'보다 작은 말에 불과한 것이다. /아울라/가 '아우르다'에서 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줄 다 어울럽져. (줄 다 어우르고 있다.)

과 같은 例文에서이다.

이 發話는 草家지붕을 덮는 띠를 바람과 같은 外界의 힘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띠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새끼줄을 만들 때 행해지는 것으로, 원래 두 가닥으로 만들고 난 연후에 最終적으로 完成品인 '줄'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로 습친다는 뜻이다.

이 정도면 /아울라/가 '아우르다(아울다)'에서 온 것임은 自明해 지며, 이 語辭가 들어간 文章이 陸地語로 對訳할 때 '마저' <sup>17)</sup>

注17) , 여기서는 /마저/로 對訳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까지'는 話者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主体가 遂行해줌에 대하여 讚意를 表하는 立場에 설 때에, /마저/는 話者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을 主體가 遂行함에 대해 讚意를 表하지 않거나 否定하는 立場에 사용되며, /조차/는 잘 되리라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는 데 대해 讚意를 表하지 않는 立場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곧 '너조차(까지) 욱을 하는구나'는 意味가 달라져 버린다.

高永根, 「특수조사의 意味分析」, <文法研究>3, 塔出版社 (1976), pp. 7-21.

로 될 것이며, 이 / 마저 / 를 限界的인 終結'의 뜻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서<sup>(18)</sup> 心証을 굳힐 수 있는 것이다.

1 : 2. 이제 이 /아울라/ 가 들어간 例文을 보도록 하자.

- (1) 너 아울라 욱햄구나. (너마저 욱을 하는구나.)
- (2) 국 아울라 쉬었져. (국마저 변했구나.)
- (3) 집 아울라 팔아먹곡, (집마저 팔아버리고는)
- (4) 재주 아울라 지고보니 (재주마저 지고보니)
- (5) 산 아울라 파부런 (산소마저 파해쳤으니)

例文에서 보듯, 현재 狀況에서는 더 이상 行해질 구체적인 動作이나 대상이 없는데도 <그것마저>하는 구체적인 行動이 벌어진데 대한 불만의 表示인 것이다. '너 아울라 욱햄구나'는 發話 前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욱을 할지라도 聽者인 <너>만큼은 구체적인 <욕을 하지>말았으면 기대했지만, 예상외로 <욕을 했기>때문에 나와진 發話인 것이다. 그러니깐 <욕을 하는> 最終의 사람이 바로 聽者가 되는 것이다. (2)文章에서도 변한 최종의 음식이 <국>이고, (3)에서도 다른 물건을 다 팔아버리더라도 <집만>은 팔지 않겠지 하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예상을 뒤엎고 이미 팔아버린 물건과 같이 팔아버린 데서 오는 불만의 發話인 것이다. (4)와 (5)도 마찬가지로 說明이 가능하다.

---

注18) . 成光秀, 「國語助辭에 대한 研究」, 형설출판사 (1980);

例文中에서 /아울라/ 를 제거해 버리면,

- (1)' 너 욱햐구나. (너까지 욱하는구나),  
(?너도 욱을 하는구나)
- (2)' 국 쉬엇저 (국이 변했구나) (?국까지 변했구나)
- (3)' 집 팔아먹곡 (집을 팔아버리고는),  
(?집까지 팔아버리고는)
- (4)' 재주 지고보니 (재주까지 지고보니), (?재주도 지고보니)
- (5)' 산 파부런 (산소를 파헤쳤으니),  
(?산소까지 파헤쳤으니)

와 같이 되는데, (1)' 와 (4)' 를 제외하고는 그 뜻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各 文章을 뒤에 처럼 対訳도 가능해 보이기는 한 지만 **native speaker**의 言語 直觀에서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아울라/ 를 제거해 버리면 그 뜻이 달라지며 形成過程에서 볼 때, 2, 3, 4項에서 高찰할 語辭와 같은 계열의 발달로 /아우르(아울)/에 /-아/가 연결되어 形成된 것으로, 分明 後置詞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 성 아울라 떨어졌구나 (형님마저 떨어졌구나)
- 가의 아울라 매맷아찌 (그 애마저 매를 맞았다)
- 나 아울라 갔다와찌 (나마저 갔다가왔다)
- 길 아울라 매워져서 (길마저 메꾸어져서)
- 발 아울라 팔아먹곡 (발마저 팔아버리고는)

위 例文과 함께 例文(1)~(5)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울라/ 앞

에 先行하는 体言은 ‘너(汝), 성(兄), 가외(此童), 나(我)’와 같은 人代名詞이거나 ‘국(君), 집(家), 재주(才), 산(墓), 길(道), 밭(田)’과 같은 具体性を 지니고 있는 名詞이어야 한다.

후치사는 일반적으로 格을 지배하는데, /아울라/는 对格을 지배하며, 後行하는 格語尾로는 /-도/밖에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하다. (성 아울라도 떨어졌구나. 나 아울라도 갔다와찌.)

## 2. /마라/

2 : 1. /마라/는 존 다(曰), 외 語幹에 /-아/가 연결되어 形成된 語辭이다. 方言에서 ‘말하다’에 해당되는 ‘근다’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집외서랑 말 근지 말라. (집에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이제랑 말 마르라. (이제는 이야기하라)

그여 마라주마. (그래, 이야기해주마)

말 근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마라 마랍시냐.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例文에서 보듯, ‘근지, 마르라, 마라주마, 마르민, 마랍시냐……’ 등 語尾變化를 하는 二 변칙용언으로 ‘근다(曰)’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後置詞 中에는 用言의 語幹에 /-아(어)/가 연결되어 形成된 것이 많이 있는데, /부터/가 붙(附)+어/, /드려/가 /드리(与)+어/, /셔/가 /시(有)+어/, /더불어/가 /더블+어/, /조차/가 /좃(從)+아/, /남(餘)+아/에서 /나마/가, /

／못(終)＋어／에서 /마저／가 나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들이다.<sup>(19)</sup>

方言에 사용되는 /마라／도 /쁜(日)＋아／가 연결되어 形成된  
것이 分明해진다.

2 : 2. 後置詞 /마라／가 사용된 例文을 보도록 하자.

- (6) 누님마라 마르난 (누님한테 이야기하너)
- (7) 날마라 보았젠 하염시네 (나보고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 (8) 성마라 지 말라 (형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 (9) 자청비마라 말을 하되 (자청비<sup>(20)</sup>한테 말을 하되)
- (10) 가의마라 집이 가렌하라 (그 애보고 집에 가라고 해라)

위 例文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은 /마라／가 지배하는 動詞  
語類는 항상 '말하다'라는 것이다. 文章 (6)(8)(9)는 직접 '말하다'  
라는 V語類가 연결되어 있으며 文章(7)의 <하염시네>와 (10)의 <하  
라>는 다같이 '말하다'의 代用言으로 사용된 것이다. /마라／가  
지배하는 V語類가 '말하다'이기 때문에 항상 /마라／앞에 先行  
하는 体言 또한 <말을 들을 수 있는> [十有情的]인 事物이어

汪19), 李崇寧, (1970), Ibid, pp. 150-158.

劉昌惇, 「李朝國語史研究」, 宣明文化社(1974), pp. 206-207.

李基白, 「國語助詞의 史的研究」, <어문론총> 9.10 합병호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75), p. 56, pp. 76-79

20), 神名으로 自請妃임.

야한다. 이 十有情의인 事物이 /마라/ 앞에 先行되는 사실로 인하여 가끔 与格으로 오해를 받는 所以가 된 것이다. 이 오해에 대한 풀이는 IV項으로 미루기로 한다.

그럼 提示한 例文에서 /마라/를 제거해 보자.

- (6)' 누님 마르난 ( ? 누님이 이야기하니 )  
( 누님에게 이야기하니 )
- (7)' 날 보앗젠 하염시비 ( 나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
- (8)' 성 큰지 말라 ( 형님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 )
- (9)' 주청비 말을 하되 ( 자청비가 말을 하니 ),  
( ? 자청비한테 말을 하니 )
- (10)' 가외 집이 가렌하라 ( 그 애보고 집에 가라고 해라 )  
( 그 애외 집에 가라고 해라 )

文章 (7)'는 완전히 다른 意味가 되어 본뜻이 아주 멀어져 버렸고, (9)'는 앞에 처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며, (뒤의 意味도 가능하긴 하지만) (6)'는 앞에 보다는 뒤 意味가 가깝고, (8)'와 (10)'는 그 원뜻을 지니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큰다/라는 의미자질에서 文法素로와 變化를 암시해 주고 있다고 본다.

이 /마라/는 앞 1項에서 고찰한 후치사 /아울라/와는 달리, 与格을 지배하며,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형태의 格語尾와 연결된다. 연결이 가능한 格語尾 形態는 /-나, -랑, -도, -사,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듯하다. (가외마라도 집이 가렌하라. 날마라사 마르테주하여. 성마라랑 큰지 말라. 누님마란 말을하곡)

### 3. /아자/

3 : 1. 後置詞 /아자/는 '앉다(坐)'의 語幹에 /-아/가 연결되어 形成된 語辭이다. 方言에서 '坐'에 해당하는 어휘로는 '앉다'와 '앗다'가 있어 變形으로 存在했던 것으로 보인다. 李 崇寧持士는 (1978:22) /앗-/ , /아지/가 古形이고 /앉-/은 俗저어의 침입인지, 아니면 /앗/ , /앉/의 變形으로 存在했는지를 망설이고 있는 듯하다. 方言에서 '아지라, 아집서, 아진 자리, 아진베기, 아진 일, 아진 지레, 아진 차례'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島全域에 걸쳐 '앉다; 앓다'가 사용되고 있어 變形으로 存在했으리라 보고 싶다.

3 : 2. 이 /앉-/ 또는 /앗-/이 사용된 類型은 다음과 같다.

#### (A) 型

관 위의 올려 앉정 (관 위에 올려 앉이고)

브름질에 앉저놓고 (란람길에 앉혀놓고)

문전테레 돌려 앉전 절을 시키고 (門前쪽으로 돌려 앉혀  
절을 시키고)

나문밖동산 앓아 궂궂드리 생각하니 (南門外에 지켜 앉아서  
뽀뽀히 생각하니)

#### (B) 型

(11) 하를아자 삼씩번 초자오난 (하루 동안 계속해서 세 번씩  
찾아오니)

(12) 하를아잔 중이 식씩이나 오난 (하루 동안 계속해서 중이  
세 사람씩 찾아오니)

(A)型에 사용된 /앉-/은 '坐'의 意味를 지니고 있는 実辭이며, (B)型에 사용된 /아자/는 /앉-/에 /-아/가 연결된 형태로 후치사의 素性を 지니고 있다. 여기서 (B)型을 육지어로 對諷할 때 <~동안 계속해서>라고 한 것은 /앉-/ 또는 /앉-/이 지니고 있는 意味資質 때문이다. '문전대테 돌려 앉전 절을 시키고'에서 <절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行動이 行해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돌아 앉아 있는 것이며, '나문밭동산 앉아 꾀꾀 드려 생각하니'에서는 <곰곰히 생각하고 있는 동안 만은> 계속 지켜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깐 '앉다(앉다)'로 말미암아 <상태나 행동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아자/는 /앉(앉)/에서 나온 후치사이기 때문에 <고정된 상태>라든가, <태도의 지속><sup>(21)</sup>을 나타내 주고 있다.

(11)' ㅎ를 삼씩번 초자오난(하루 동안 세 번씩 찾아오니)

(12)' ㅎ를 중이 식씩이나 오난(하루 동안 중이 세 사람씩이나 오니)

(11), (12)文章과 (11)', (12)'文章을 비교해 볼 때 의미상에 그리 큰 차이는 없다. 그 이유는 /앉(앉)-/에서 나온 /아자/가 持续性 또는 지속성을 지니고 있고, 또 (11)' (12)'에서 <찾아오는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구체적인 行動 앞에 先行하는 순서나 횟수를 나타내는 숫자 개념의 어

注21), 李崇寧, (1970). Ibid. p. 160

李基文, 「國語史概說」, (改訂版) 塔出版社, (1980).

pp. 172-173

뒤가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12)'에서는 <중 세>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각기 다른 스님이 찾아온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 앞에 說明한 내용이 타당하게 될 것이다.

3 : 3. 이 /아자/가 內包하고 있는 특징은 위에서 說明한 계속성이며, 또 하나의 특징은 숫자의 개념이 들어있는 체언 '흔들 (一日)' 뒤에만 연결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意味上으로 볼 때 <고정된 상대> 나 <동작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中世國語 /자히/와 같다.

물 툰 자히 건너시너이다 (龍歌 34)

세 모미 누븐 자히서 보디 (月譜 9:30)

世尊히 龍王窟애 안존 자히 겨샤디 (月譜 7:52)

그러나 이 /자히/가 어디에 語源을 두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名詞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2)</sup>

이 /아자/에 연결되는 格語尾로는 /-니, -도, -사/밖에는 없다. (흔들아잔 삼식번 초자오니. 흔들아자도 초자오는 사람없고, 흔들아자사 겨우 한번 만나니). 支配格은 妣格이다.

#### 4. /신디/

4 : 1. 후치사 /신디/는 /시다(有)/에서 形成된 語辭로 보인다. 나중에 Ⅲ項 1에서 다를 /디/가 밝혀져야만 확실하게지만 일단은 '있다'의 方言形인 '시다'에서 나온 것으로 想定, 用言的

---

注 22), 李基文, (1980). Ibid. p. 172

인 항목에서 다루고자하는 것이다.

4 : 2. /신디/는 다음 例文과 같이 몇 가지 類型으로 나타난다.

(A) 型

산 신디 간 토난 (묘소가 있는 곳에 가 보니)

소남 신디 사람 잇수다 (소나무가 있는 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옴 장남 신디 강 (아옴 장남이 있는 곳에 가서)

(B) 型

사람 신디 다시 와시냐 (사람이 있는데 다시 왔느냐)

어디사 신디 잘 모르키여 (어디에야 있는지 잘 모르겠다.)

(C) 型

쇠가 죽어신디 (소가 죽었는데)

조팍을 먹어신디 그만 목에 걸어지언 (粟飯을 먹었는데 그만 목에 걸려서)

(D) 型

(13) 애긴 아방신디 가고 (딸은 아버님께 가고)

(14) 마귀할망신디 강 (마귀할망한테 가서는)

(15) 밧가는 아옴 장남신디 강 ㄹ르난 (밭을 가는 아옴 장남에게 가 이야기하니)

위 類型의 例文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A) → (B) → (C)로 발달은 活用語尾로서의 발달이고, (A) → (B) → (D)로 발달은 후치사

로서의 발달인 것이다.

우선, (A)型에서는 /신-(有)/과 /디/<sup>(23)</sup>가 각각 엄연한 実辭로 존재하고 있어, 두가지 意味資質을 다 内包하고 있다. (B)型에서는 /시-(有)/의 의미는 존재하나 /디/의 기능이 약화되어 /-디/가 하나의 語尾로 굳어진 형태이고 (C)型은 用言의 副詞形 다음에 연결되어 /-어신디/가 굳어진 형태로 보인다. (D)型은 十有情의 体質에 연결 与格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후치사이다.

4 : 3. 方言에서 '있다'에 해당하는 어휘로는 /이시, 잇, 시, 잇/ 등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sup>(24)</sup>

ㄱ타니 잇다 (가만히 있다)

쌀이 이시민 밤이나 행 먹주 (쌀이 있으던 밤이나 해서 먹지)

가의 집의 시수나 (그 애는 집에 있습니다.)

늘랑 잇당 가라 (너는 있다가 가거라)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각기 音韻環境이 다른 데서 起因하고 있을뿐, 실상은 /이시(잇), 시(잇)/ 두 語形이 있는 셈이 된다.<sup>(25)</sup>

---

注 23) , 이 /디/는 /ㄷ/에 처소적이 연결된 형태임.

24) , 姜根保, 「제주도 방언의 '있다' 活用考」, <논문집> 4 .  
濟州大學(1972), p. 29 .

25) , 李崇寧, (1978), Ibid., pp. 23-24 .

육지어에 있어서도 '있다(有)' 해당하는 형용사는 變形으로서 /이시/ 또는 /시/가 병행, 사용됨은 周知의 사실이다.

육지어이전 方言이전간에 이 두 語形이 並存해서 使用되어 오다가 /이시다/가 우세하여 言衆들에 의하여 즐겨 써왔고, 反面 /시다/는 廢語가 되어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 /시-/가 廢語가 된다는 사실은 /신디/가 어휘자질에서 변모하여 문법적 자질로 변화를 示唆해 주고 있다. 존칭보조어간인 /-시-/가 이 /시(有)/形에서 나왔으며, 시작·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후치사가 /이시-/에 /-어/가 연결되어 '이셔(셔) >셔 >서'로 발달하여 /시/의 副動詞形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며,<sup>(27)</sup> 속격의 /스/도 /시-/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sup>(28)</sup> 方言의 動作相에 나타나는 /암시, 엄시/ 및 /암(엄)스/의 /-시-. -스-/도 이 /시다/에서 나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sup>(29)</sup>

---

注 26) , 李崇寧, (1970). Ibid. p.96

安秉禧, 「15 C 國語의 活用語幹에 대한 形態論的研究」, 塔出版社(1978). pp. 43-44

이 語源論的 變形語는 李崇寧教授의 「語幹變形說의 提起」, (서울大 論文集 人文社会科学 6)에서 變形說을 皮력한 바 있다.

27) , 李基文教授는 /이시-/의 副動詞形으로 보고 있다. Ibid. p. 173

28) , 徐禎穆, 「체언의 統辭特性和 15 C 國語의 -스/이/의」, <國語學> 7. 國語學會(1978), pp. 208-211

安秉禧, 「중세국어의 속격어미 -스-에 대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pp. 337-345

29) , 玄平孝, (1976), Ibid. pp. 42-50

그러니, (A), (B)型的 /시- /는 実辭로 어휘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C), (D)型에 사용된 /시- /는 어휘자질이 희박해지면서 문법적 자질로 변모되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4:4. 후치사 /신디 /는 /시다 (有) /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신디 /를 제거해버린 文章 (13) ' (14) ' (15) '는 그 뜻이 모호해지거나 달라져버린다.

(13) ' 또 애긴 아방 가고

(14) ' 마귀 할망 강

(15) ' 밧가는 아옴 장남 강 마르난 ( 밧을 가는 아옴 장남이 가서 이야기 하니 )

그리고 /신디 /가 /시다 (有) /와 /디 (處) /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있는 곳>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미치기 때문에 与·處格으로 볼 所以가 있다고 보아지며, 이 /신디 / 뒤에 연결될 수 있는 格語尾들은 /-랑, -도, -르, -단, 기지, -노, -레, -부뎀 / 등이 연결 사용되며, 支配格은 主格이다.

## 5. /만이 /

5 : 1. 후치사 /만이 /는 형용사 ' 많다 (多) '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16) 오름만이 싸아듭서 ( 언덕만큼 쌓아 놓고는 )

(17) 눈이 할락산만이 오랏찌 ( 눈이 한라산만큼 많이 왔다 )

文章 (16), (17)에서 보면 /만이 /가 /쌓은 / 行動이나 상태가 /만이 / 앞에 先行하는 体語보다 많거나 그만큼이나 된다는 제한된

정도를 뜻하고 있다. 文章 (17)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이/가 연결되어 後行하는 動詞語類의 상태나 정도를 제한 한정하고 있다면 꺾지 /만이/는 ‘많다(多)’에서 온 것이 분명해진다. 문제는 ‘많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만이/가 아니라 /만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있다. 方言의 일상적인 兪語에서는 ‘만히 먹어라’가 아니라 보통은 ‘만이 먹어라’라고 해서 /ㅎ/음이 탈락되어 使用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문제해결은 쉬 풀리게 될 것이다.

方言에서 ‘많다(多)’의 意味로는 / 많- /보다는 ‘하다(多)’에서 나온 /하영/이 많이 쓰이고 native speaker들도 즐겨 쓰고 있는 편이다. 논의의 대상이 된 /만이/는 ‘많다’에서 나온 것임은 의심할 바 없을 것이다.

5 : 2. 그러면 文章 (16), (17)에서 후치사 /만이/를 제거해 보자.

(16) ‘오름 싸아둔서 (언덕을 쌓아 놓고는)

(17) ‘눈이 할락산 오랏쨌 (눈이 한라산에만 왔다)

(16) ‘은 (16)의 본뜻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의미로 탈바꿈해버리지 마는, (17) ‘는 겨울철이 되어 아직 눈은 해변가에는 내리지 않고 고산 지대인 한라산까지 단 내려왔다는 意味가 된다. (17) ‘를 <눈> 대신에 <비>로 바꿔보면 더 분명해진다. <비>로 바꿀 경우, 비가 올 날 씨인데도 들판이나 마을에는 내리지 않고 검은 구름이 모여 있는 한라산까지 단 내려, 조금 있으면 내리지 않았던 곳에도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兪語가 된다. 물론 <눈>이나 <비>가 한라산까지 만이라고 한정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만이/가 연결되어 그 뜻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후치사란 品詞가 統辭論的 立場에 서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난이／에 先行하는 体言은 예문에 사용된 <오름, 할락산>처럼 구체성이 있는 名詞이어야만 하고 後行하는 格語尾로는 /-도, -나, 사/ 정도로 제한 사용되고 있다. 支配格은 主格이다.

#### 나. 体言的인 후치사

##### 1. /디/

1 : 1. /디/가 사용된 用法은 두 가지 類型이 있다. 하나는 가 項, 4에서 言及한 (A)型的 /디/이고, 다른 하나는 例文과 같이 사용된 것들이다.

##### (B) 型

- (18) 밭디 감수다 (밭에 가고 있습니다)
- (19) 솔디 물 시냐 (솔에 틀어 있느냐)
- (20) 낭 우터 닷아수다 (나무위에 닷았읍니다)
- (21) 장광뒤터 간 보난 (장독대 뒤에 가 보니)
- (22) 평풍뒤터 곶찌뚝서 사는디 (평풍뒤에 숨겨두고 살아가는 데)
- (23) 저디 시베 (저 곳에 있다)
- (24) 이디 아지라 (이 곳에 앉아라)
- (25) 그디 십서 (그 곳에 제십시도)

(A)型에 使用된 /디/는 전부가 다같이 /곳에/로 對訳이 된다. 그러나 /디/는 前述한 바와 같이 /ㄷ/에 処格이 연결된 形態

인 것이다.

／ㄷ／는

가히 ㅅ벼를 너홀면 입시울 ㅎ야디는 돌 모르고 (月譜 7:18)

현 나라신 돌 알리 (龍歌 112장)

眼人인 ㄷ이 더 곤흔 돌 불기시니 (榜嚴 3:1)

과 같이 ‘것, 줄, 까닭’을 나타내는 形式名詞인 것이다. 이 形態에 処格이 연결되면 /ㄷ/ 또는 /되/로 나타나기도 한다.

겨신 ㄷ ㄹ 무러 (龍歌 62장)

갈ㄷ ㅅ서 (杜謔 15:2)

면 ㄷ ㅅ 胡教 (月譜 2:29)

이 /ㄷ/는 本是, 実辭化된 것이어서 処所를 나타냈던 語辭이며 処所的 어휘로 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sup>(30)</sup>, 한편으로는 文法的인 요소도 內包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例文에서 이 사실을 立証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

注 30) , 李崇寧教授와 許雄教授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李崇寧, 「所有格과 処格의 比較試圖」, <音韻論研究>  
(1955), p. 282

許 雄,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1979), p. 278

(a) 型

念<sup>ㅎ</sup>흔<sup>ㄷ</sup>든 너는 배<sup>ㅁ</sup>몸 珍寶<sup>ㄹ</sup>의<sup>이</sup> ㅎ<sup>ㅁ</sup>물 니기호<sup>ㄹ</sup>라 (杜諺 8 : 53)

願<sup>ㅎ</sup>흔<sup>ㄷ</sup>든 니르쇼<sup>ㅅ</sup>셔 (稗譜 13 : 44)

바<sup>ㄹ</sup>란<sup>ㄷ</sup>든 上<sup>ㅅ</sup>人<sup>이</sup> 혀 傷<sup>ㅅ</sup> 알<sup>ㅍ</sup>씨가 저<sup>ㅎ</sup>습<sup>ㅁ</sup>게 ㅎ<sup>ㄹ</sup>라 (六祖 上 . 23)

(b) 型

그제<sup>ㄹ</sup>로 오<sup>ㅅ</sup>신<sup>ㄷ</sup>디 손<sup>ㅅ</sup>지 오<sup>ㄹ</sup>라<sup>ㄷ</sup>디 묻<sup>ㅅ</sup>거<sup>ㅅ</sup>시<sup>ㄷ</sup>든 (法華 5 : 119)

구<sup>ㅍ</sup>퇴<sup>ㅅ</sup>여 다<sup>ㅅ</sup>시 니<sup>ㄹ</sup>르<sup>ㅅ</sup>살<sup>ㅁ</sup>며 아<sup>ㅅ</sup>니<sup>ㅁ</sup>며 (法華 1 : 145)

(c) 型

나<sup>ㅅ</sup>는 ㄴ<sup>ㅅ</sup> 正<sup>ㅎ</sup>흔<sup>ㄷ</sup>디 ㄴ<sup>ㅅ</sup> 갖<sup>ㄷ</sup>근<sup>ㄷ</sup>디 아<sup>ㄷ</sup>디 ㄴ<sup>ㅎ</sup>노<sup>이</sup>다 (楞嚴 2 : 12)

현<sup>ㅁ</sup>맛 幼<sup>을</sup> ㄷ<sup>ㅅ</sup>난<sup>ㄷ</sup>디 모<sup>ㄹ</sup>리<sup>ㄹ</sup>로<sup>ㅅ</sup>니 (月譜 14 : 9)

(b), (c)型은 별문제가 없지만 (a)型만은 ‘念<sup>ㅎ</sup>흔<sup>ㄷ</sup>든, 願<sup>ㅎ</sup>흔<sup>ㄷ</sup>든, 巴<sup>ㄹ</sup>란<sup>ㄷ</sup>든’을 各各 ‘念<sup>ㅎ</sup>하는 것은, 願<sup>ㅎ</sup>하는 것은, 巴<sup>ㄹ</sup>라는 것은’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달리 ‘念<sup>ㅎ</sup>하<sup>ㄹ</sup>전<sup>ㄷ</sup>덴, 巴<sup>ㄹ</sup>하<sup>ㄹ</sup>전<sup>ㄷ</sup>덴, 으<sup>ㄹ</sup>로<sup>ㄷ</sup>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 : 2. 이제 方言으로 돌아와서 살펴보자.

方言에서 /ㄷ/는 処所라는 어휘자질과 함께 処格이라는 文法的 資質을 포함하고 있는 후치사이다. 앞에 提示한 (A)型은 어휘적 자질을, (B)型은 문법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된다.

그런데 方言에 실현되는 処格形態에는 /-에/가 제일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도 나타나고 있다. 이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의/도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의/는 잘 나타나지 않음이 특이하다.

- (26) 선비 서당의 글공비 갔더니 (선비가 서당에 글 공부하러 갔  
더니)
- (27) 앞의 오는 사람신디 (앞에 오는 사람에게)
- (28) 그 法으로 낮의 일광하나 생기고 (그 法으로 낮에 태양  
하나가 생기고)
- (29) 낭귀<sup>(31)</sup> 적문 (南에 赤門)

例文에서 본다면, 원칙적으로 處所格이 연결될 때 母音調和規則이 적용되어 ‘서당의, 앞의, 낮의, 낭귀’ 등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여 /의/가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다.

물론 處格인 /의·의/는 특수한 어휘에만 연결되니, 우회(上), 앞편(前), 새바귀(曉), 어딴(何處), 어긔(何方), 밧귀(外), 처어긔(初), 울흔너귀(石側)에서 보듯 엄격하게 母音調和가 지켜지고 있다. (‘캣귀’는 例外인 듯함)

또, 이 /-에/나 /의/에 못지 않게 나타나는 形態로 /이/가 있다.

- (30) 집이 가게 (집에 가자)
- (31) 동녘 집이 강 마르라 (동쪽 집에 가서 이야기해라)
- (32) 밧이 강 (밭에 가서)
- (33) 개<sup>(31)</sup>시 가게 (바닷가에 가자)

注 31) . 玄容駿, 濟州島巫歌資料事典 . p. 51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方言에서의 ㄷ格發達은 /의>이/가 된다는 것이다.<sup>(32)</sup>

例文 (32)에서 '밭이 강'은 '밭디 강'으로, (33) 개깃시 가게'는 '개깃디 가게'로 되어도 뜻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디/도 문법적 요소로서의 기능인 처격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디/의 발달은 形式名詞 /ㄷ/에 ㄷ格 /의/가 연결, /ㄷ+의>의>디/<sup>(33)</sup>로 발달된 것이다.

1 : 3. 이 /디/는 先行하는 體言의 끝자음이 /t, h/이거나 ( (18)(19)(20)(21)(22) ), 指示代名詞 /이, 그, 저/ 다음에 연결된다. ( (23)(24)(25) )

/디/가 지배하는 格은 屬格이며, 그 뒤에 붙을 수 있는 格語尾로는 /-랑, -도, -나, -ㄴ, -르, -사, -깃지, -만, -영/등이다. ( 개깃디랑 가지 말라. 밭디나 가싱가. 그디도 어시난, 그디 낄령이여. 저디사 어시까호연. 두터깃지 초자도. 솔디 물 비우난. 우터만 이시민. 밭디영 집이영 도라멩겨도. )

注 32) , 李崇寧, (1978). Ibid. pp. 31-32

33) , 康貞姬, (1980). Ibid. p. 80 에서는 /ㄷ>디>의>디/로 보고 있다.

## 2. /안티/

2 : 1. 이 /안티/는 体言인 /안ㅎ(内)/에 나. 1에서 言及한 /디/가 연결되어 형성된 후치사이다.

/안ㅎ/이 '内'의 意味로 사용된 예를 보도록 하자.

(34) 물<sup>ㄴ</sup>져오라 안카심 준지르게 (물을 가지고 오너라 속마음을 적시게)

(35) 안카름에 사는 사람 (가운데 동네에 사는 사람)

(36) 안커리에 아잔 보난 (안채에 앉아서 보니)

例文 (34)(35)(36)에서는 '内'의 意味가 分明히 포함하고 있는 実辭인 것이다.

여기에 /디/가 연결되면,

(37) 어멍안티 생야단들언 (어머니한테 생야단을 맞아서)

(38) 부인안티 간 (부인에게 가서)

(39) 요놈안티 속아졌구나 (요 놈에게 속았구나)

(40) 성안티 글썬을 호되 (형님께 편지를 쓰고)

와 같이 나타난다. 文章 (37)에서 보면 '어멍안티'에서는 <어머님 심중에 있던 생야단>임을 나타내고 있기에 /안티/가 형성되기 前인 /안ㅎ(内)/가 /디/의 意味가 결합되어 있다. (38)의 '부인안티'도 <부인이 기거하는 곳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장 (37)~(40)까지 사용된 /안티/가 육지어로 대역할 때 /-에게, -께, -한테/로 된다고 해서, 그 중 /-한테/와 형태상, 기능상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役格으로 처리될 수는 없을 것 같다. 더

구나 두 語形이 語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 2. /안티/란 후치사도 /디/와 마찬가지로 體言에 그 語源을 두고 있어, 속격을 지배하고 있으며 先行하는 體言은 '성(兄), 부인, 놈(他人), 어멍(母)'과 같이 [十有情性]이 있어야 하며, 後行하는 格語尾에는 /-나, -도, -만, -때, -랑, -나, -영, -르, -사/들이다.

### 3. /아피/

3 : 1. /아피/도 마찬가지로 /앞(前)/에 屬格/-이/가 연결된 형태이다.

'앞(前)'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보면,

- (41) 나 앞서 가는 사람 (나 앞을 통과해서 가는 사람은)
- (42) 앞집에 강 보라 사람 시냐 (앞 집에 가서 보라, 사람이 있는지)
- (43) 산 앞으로 가는데 (산 앞쪽으로 가는데)
- (44) 나 앞의서 인명이나 축하고 (나 앞에서 人命이나 알리고)

文후 (41)~(44)까지는 다같이 '前'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들이다. 이 /앞/에 /-이/가 연결되어 어휘적 자질보다는 문법적 직능적으로 기울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45) 성아피 앓아가난 (형님한테 가지고 가니)
- (46) 등에진 물건 아무아피 강 주어도 (등에 지고 있는 물건 아무에게나 가 주어도)
- (47) 가의아피 편지하라 (그이에게 편지하라)
- (48) 딸아피 맥기멍 (딸에게 던지면서)

文章 (45)에서는 <가지고 가는 물건>을 <형님 앞에 가지고가  
놓으니>와 같은 의미로 ‘前’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46)  
(47)(48) 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如格 /-이/가 연결되어 형  
성된 것이기에 文法的으로 기능을 세밀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 ‘형님에게, 그이에게, 딸에게’라고 제한하고 있음 )

3 : 2. 속격을 지배하고 있으며 先行하는 体言은 ‘성(兄), 아무  
(何誰), 딸(女)’과 같은 [十有情性]이 있어야 하며, 후행하  
는 格語尾로 /-으로, -도, -만, -랑, -나, -리, -사, -예/ 등 이다.

다. 格으로서의 素性和 / (이) 손더 /

1 : 1. 지금까지 用言, 또는 体言에 語源을 두고 있는 몇 가지  
후치사에 대하여 考察해 봤다.

그러면, 왜 후치사 中에는 몇몇이, 곧, /ㄴ라, 신더, 안티, 아피/  
가 格語尾로 오해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与格이 되기 위하여서는 先行하는 体言이 [十有情]이고 [十具  
体]적이거나 한다는 것이다.<sup>(34)</sup>

일반적으로 여격은 賦与, 指向, 関心 等 대상을 드러내는 의미로  
記述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격은 그 자체가 드러내는 기능은 단순  
한 대상의 지시가 아니라 動作이 行해지는 方向을 드러내는데 있  
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격은 어떤 대상으로 向한 動作의 지

---

注34) . 成光秀, (1980). Ibid. p. 32

향, 필경은 歸着해야 할 領域의 대상에 관계하는 素性으로 파악되어  
야 할 것이다.<sup>(35)</sup>

(45) 성아피 앗아가난

(37) 어명안티 생야단들언

(6) 누님 ㄹ라 ㄹ르난

(15) 장남신디 ㄹ르난

윗 문장들은 다같이 체언이 [十有情], [十具体]性은 만족시켜  
주고 있다. (45)에서 <앗아가는> 대상물이 <성>에게 미치고 있으  
며, (37)에서는 <생야단>이 말들을 이인 청자에게 도달했으며, (6),  
(15)에서는 <장 ㄹ른>말이 청자에게 이미 도착 했음을 알 것이다.  
(불론 청자는 '누님'과 '장남'이 된다)

이같은 사실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前), 안(內)' 또는  
/신디/가 가지고 있는 어휘자질 때문에 빚어진 오려인 것에 지  
나지 않는다. 어휘 '앞, 안'부터가 구체적인 장소를 뜻하고 있고,  
'앞'은 <공간적으로 전면 즉 얼굴이나, 눈이 향한 곳>이고,  
'안'은 <공간적인 속>을 의미하고 있다. 이 공간성이 구체적인  
場所를 곧 대상을 드러내 보임과 동시에 行動의 방향을 지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면 /ㄹ  
라/를 제외한 나머지 세 語辭가 다같이 공통적으로 廻格이 연결

注 35) . 李承旭. (1973). Ibid, p. 84

金敏洙. 「國語의 格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49, 50

국어국문학회 (1970), p.30

申昌淳. 「國語助詞의 研究(II)」, <국어국문학>, 71.

국어문학회 (1976), pp. 17-20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성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마라／의 경우는 항상 후행하는 V類가 '말하다'이기 때문에 '말들을' 대상인 청자가 나타나야만 하고, '말하는' 구체적인 동작이나 내용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깐 위 네 가지 語辭는 다 統辭論의 입장에서 서 있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신디／도 '있는 곳'으로 해석이 되며, 대상물이 구체적으로 있는 곳을 나타내게 하며, 구체적인 행동이 미침(及)을 내포하고 있다.

2 : 1.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으)손터／란 후치사는 속격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들 있다. (李基文 1980 : 171, 劉昌惇 1974 : 203, 李基白 1975 : 56), 이 ／(으)손터／는 方韻의 ／신디／와 흡사하고 ／신디／가 用言에서 그 語源을 찾을 수 있어 ／(으)손터／ 규명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으)손터／의 ／이／를 무슨 格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前述한 바 있지만 대부분 속격으로 보고 있다. 方韻에 ／이／가 속격, 처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49) 비스리초막이 걸바시가 앉아들서 (허름한 초막에 거리가  
앉아 있어)

(허름한 초막의 거지가  
앉아 있어)

(50) 남조이 기십으로 (남자의 기백으로)

(49), (50)에서 보듯이 方韻에서 처격과 속격과 주격이 서로 넘나들

듣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손터/의 /이/는  
치격, 주격, 속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 셈이다.

둘째, 형태상으로 유사성이다. ( s - n - t )

셋째, 의미상으로 同一하다는 것이다.

날 사랑하던 정을 뉘손터 옮기신고 ( 고시조 )

모든 아즈미손터 드로니 ( 内訓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이손터/의 方言形  
은 /선터/임을 알만하다.

### III. 結

### 論

지금까지 濟州島 方言에서 찾아볼 수 있는 後置詞에 對하여 高찰해 왔다. 高찰대상이 된 일련의 語辭들은 陸地語와 차이가 심하고 독특한 것으로 確信한다. 그 結果를 요약하여 結論으로 대신한다.

(i). 高찰대상은 육지어와 비교하여 독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어휘를 대상으로 삼았다.

(㉠) 用言的인 後置詞 - /아울라, 마라, 아자, 신디, 만이/

(㉡) 体言的인 後置詞 - /더, 안티, 아피/

(ii). 이 後置詞들은 格을 支配하고 있으며 後行하는 格語尾도 多樣하다.

구분 어원	후치사	支配格	先行体言	後行格	V 語類	비고
用言	아울라	對格	有情性, 具体性体言	도	動作動詞	.
	마라	与格	有情性体言	ㄴ, 도, 랑, 사	말하다	.
	아자	処格	흐를(一日)	ㄴ, 도, 사	動作動詞	자히
	신디	主格	有情性, 具体性体言	ㄴ, 도, ㄹ, 랑, 만, 레, 부엌, ㄱ지	"	이손더
	만이	主格	具体性体言	도, 사	상태, 동작동사	.
体言	더	屬格	지시대명사, /t, h/제통	ㄴ, 도, ㄹ, 나, 랑, ㄱ지, 만, 영	動作動詞	.
	안티	"	有情性体言	ㄴ, 도, 만, 랑, 레, 나, 영, ㄹ, 사	"	.
	아피	"	"	으로, 도, 만, 랑, ㄴ, ㄹ, 레, 사	"	.

- (iii). 後置詞 /아올라/는 最終과 불만의 意味가 포함되어 있으며 육지어로 對訳할 때는 /-마저/가 된다.
- (iv). /마라/는 항상, 인칭대명사와 같은 [十有情性]이 함의된 体言뒤에만 사용되면 V語類도 '말하다(曰)'가 언제가 後行한다.
- (v). 숫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흐를(一日)'뒤에 연결되는 /아자/는 陸地語 /자히/에 해당되며 그 內包된 의미로 동일하나, 다만 그 語源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 (vi). /디/는 어휘적 자질이 희박하여 문법적 요소를 변모해 가고 있다.
- (vii). /안티, 마라, 신디, 아피/가 与格으로 보이는 것은 對訳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며, 만일 그 직능을 담당하고 있다하더라도 피상적인 기능에 불과하며, 어떻게 보면 그 語辭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상의 특질이든지, 어휘적인 특이성에 의한 것이므로 統辭論的 立場에서 再考의 必要性이 있다.
- (viii). 中世國語에 나타나는 /이손디/는 형태상, 의미상, 그리고 지배하는 格으로 볼 때, 그 方言形은 /신디/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姜根保(1972) : 「제주도방언의 ‘있다’ 活用考」  
 <논문집> 4, 濟州大學
- (1977) : 「제주도방언의 接尾辭研究」  
 <논문집> 9, 濟州大學
- (1978) : 「제주도방언의 극용에 대하여」  
 <논문집> 9, 濟州大學
- 康貞姬(1980) : 「제주방언의 処格 -디에 관한 -考察」  
 <方言> 4, 精神文化研究院
- 高永根(1976) : 「특수조사의 意味分析」  
 <文法研究> 3, 塔出版社
- 金敏洙(1970) : 「國語의 格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9,50, 국어국문학회
- 金榮敦(1970) : 「濟州島民謡研究·上」 일조각
- 成光秀(1980) : 「國語助辭에 대한 研究」 螢雪出版社
- 徐禎穆(1978) : 「體言의 統辭的 特長과 15世紀 國語의 -入,  
 -이/외」 <國語學> 7, 國語學會
- 申昌淳(1976) : 「국어조사의 연구(Ⅲ)」 <국어국문학> 71,  
 국어국문학회
- 安秉禧(1968) : 「中世國語의 屬格語尾入에 대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乙酉文化社
- (1978) : 「15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대한 形態論的 研  
 究」 塔出版社
- 劉昌淳(1974) : 「李朝國語史研究」 宣明出版社

- 李基文 ( 1980 ) : 「 国語史概說 」 塔出版社
- 李基白 ( 1975 ) : 「 国語助詞의 史的 研究 」  
 < 어문론총 > 9.10 경북大
- 李崇寧 ( 1955 ) : 「 所有格과 処格의 比較試圖 」  
 < 音韻論研究 > 민중서관
- ( 1970 ) : 「 中世国語文法 」 乙酉文化社
- ( 1978 ) : 「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 塔出版社
- 李承旭 ( 1978 ) : 「 国語文法体系의 史的研究 」 一潮閣
- 진성기 ( 1980 ) : 「 남국의 무속서사시 」 正音社
- 池浚模 ( 1967 ) : 「 国語名詞의 屈折說을 否定한다 」  
 < 어문학 > 7, 한국어문학회
- 許 雄 ( 1979 ) : 「 우리 옛말본 」 샘문화사
- 玄容駿 ( 1980 ) : 「 제주도巫俗資料事典 」
- 玄平孝 ( 1962 ) : 「 제주도방언연구 」 1집
- ( 1970 ) : 「 제주도方言의 母音体系 」  
 < 국문학보 > 3, 濟州大學
- ( 1976 ) : 「 제주도방언의 定動詞語尾研究 」  
 垂細垂文化社
- ( 1977 ) : 「 제주도방언의 존대법 」 < 국어국문학 > 74,  
 국어국문학회
- ( 1979 ) : 「 제주도방언연구의 재검토 」  
 < 方言 > 1, 2, 精神文化研究院
- Ramstedt G.J (1939), < A Korean Grammar >

ABSTRACT

A study on the postposition  
in Cheju island dialect.

By Kang Young Bong

By this time I have studied on the post position to be able to discover in cheju island dialect. I am sure of the very deep and imimitable difference between a series of the words as the subject of study and the main land language.

So I would like to set down as my conclusion by summerizing the above result.

(i) The following words are the subject of study to be special as comparing with the main land Language.

(1) Verbal post postion ..... / aulla, Kpra, aca, sinti, mani/

(2) Nominal post postion ..... / ti, anthi, aphi /

(ii) These Postposition have various case-ending to follow as well as the control of case.

system	Post- Position	dominative case	preciding nominal	afterward case-ending	verbal words	remarks
	/aulla/	accusa -tive	animate concrete	/-to/	movable verb	.

	/kpra/	Dative	animate	/-n, -to, -rag -sa/	tell (日)	.
	/aca/	locative	'one day (一日)	/-n, to, -sa/	movable verb	/cahi/
verbal	/sinti/	subjective	animate concrete	/-n, -r, to, -rag, -man, -re , -puttam, kkoci/	movable verb	/pisonpi/
	/mani/	subjective	concrete	/-n, -to, -sa/	movable verb. the verb of state.	.
	/ti/	Genitive	demonstrative Pronoun. final consonant /n, t/	/-n, -r, -to, -na -sa, -rag, kk ci -man, -yag/	movable verb	.
nominal	/anthi/	Genitive	animate	/-n, -to, -man, -re, -na, -yen -r, -sa/	movable verb	.
	/aphi/	Genitive	animate	/-to, -man, -n -r, -re, -sa, -rag, -wro/	movable verb	.

- (iii) The postposition /aulla/ involves the meaning of ending and discontent, and when it is translated into the main land language, it becomes /macə/.
- (iv) /kəra/ is always used only after the nominal which involves [+animate] equal to personal pronoun and the following verbs are always 'tell ( 日 )'.
- (v) /aca/ that is connected after 'one day (一日)' which has the concept of number is applicable to /cahi/ in the main land Language and the involved meaning is also equal but merely the etymologies is different.
- (vi) /ti/ is being transformed into tagmeme because of the thinness of lexiconic feature.
- (vii) The reason why /anthi, Kəra, sinti, aphi/ are looked like the dative is a prejudice resulted from the translation, and even if they are in charge of it's function, it is nothing but the out ward function; while they have the necessity of reconsideration in the syntatic place because of lexiconic singularity or the meaningful peculiarity which the words have.
- (viii) /disontpi/ as found in 15th century language is guessed as the dialect from is /sinti/ when it is considered as the point of the morphologic, meaningful and controlling case.